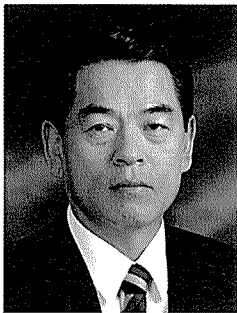


##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 The Primary Task of Overcoming Crisis

우남용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Woo Nam-Yong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면을 빌어 미려한 본인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주어진 2년의 임기동안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집행부와 더불어 8천여 건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 건축계 안팎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건축경기 불황은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로인해 건축분야에도 구조개혁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정책과 건축관련 제도의 변화는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건축사에게 숨돌릴 여력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구조체제는 우리 건축설계시장의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리며, 한국건축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축설계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의 세기를 더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회원이 단합하여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특히, 수렁에 빠진 건축설계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재된 구조

적 문제의 본질을 찾아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우리건축의 체질을 스스로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

협회 또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협회를 위해 회원이 존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 회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회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 건축사업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제에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협회의 회원관련 업무들을 전산자동화하고, 폐지된 도서신고제의 대안으로서 각종 실적증명 발급 및 기술인 인력관리 업무 전반을 개선·발전시키는 등 협회가 명실공히 건축계의 구심점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약, 설계·감리 보수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인 국민에게는 양질의 건축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건축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검사업무 대행에 따른 대가는 수수료가 아닌 기술용역비로 전환,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건축물 유지관리, 리모델링, 주한외국인 발주 설계·감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당경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연간 건축사 과다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적정수준에 맞춰 인원을 축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각종 건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건축사신문'을 창간하겠으며, 우리 건축사의 단합된 모습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상호간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신문창간과 전국건축사대회는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광고수입 및 협찬을 통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면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WTO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인증 문제에 있어서는 현업 건축사의 경우 UIA가 정하는 자격기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

비록 경제적 고충도 크고, 안팎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작금의 전환기적 상황은 우리의 재도약을 밝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그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단결과 노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